

1. 인강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자.

요즘 국어 공부에서 인강은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강을 유튜브 보듯이 그냥 틀어놓고 보는 것은 진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 보는 시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인강의 효과를 보려면, '독해, 문제 풀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의식적으로 집중하며, 인강에서 최대한 그 일관성을 뽑아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통 대다수 강사님들의 커리는 '옛기출-최근 기출' 순으로 기출 분석을 한다. 이때, 각 지문의 해설을 듣는 것이 누적될수록, "아 어차피 '갈래'라는 겹질만 다르지 본질은 다 똑같구나. 예전에 설명한거 또 설명하고, 본거 또 보고... 그냥 계속 반복되네." 이런 느낌이 반복적으로 더욱 더 강하게 들게 만들어야 한다. 더 쉽게 말해보면, 지문에 쓰인 소재가 과학, 인문, 기술 등으로 달라질 뿐, '그 각 소재를 담은 글의 서술 방식, 그리고 그 글에서 문제를 내는 포인트, 틀린 선지를 만들어내는 논리' 이렇게 세 가지는 몇 년이 지나던 항상 일관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기출 분석이 확실히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거 또 본거...아 어차피 겹질만 다르고 본질은 다 똑같구나!" -> 이게 기출 분석의 최종 지향점이다.

2. 인강을 '쇼핑'하지 말자

1번 설명에 대한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 사실 본인은 인강에 런칭하실 정도의 강사님이라면 강의력, 교재 퀄리티 등은 모두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자신에게 잘 맞는 강사를 그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한 강사님을 선택했다면 우직하게 그 강사님의 커리를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인강을 들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번에서 설명했듯이 '인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지, 무슨 교재의 디자인, 강사님의 목소리 톤 등이 아니다. 6평이 다가오니까 뭐라도 더 해봐야지, 9평이 다가오니까 뭐라도 더 해봐야지 하면서 이 강사님 저 강사님 교재를 '쇼핑'하는 것처럼 들으면, 결국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 물론 마케팅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하기 쉬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본인도 수험생 시절에 그랬다. 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행동이었다. 원래 공부는 팔랑귀가 아니라 완전 MY WAY로 가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다.

3. 무조건 오래 앉아 있다고 국어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어는 과목의 특성상, 엄청 긴 지문을 계속 읽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엄청 오래 앉아서 계속 문제를 푼다고 그게 공부의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공부 시간은 인강을 듣는 시간을 제외한, 순수하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며 문제를 푸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공부할 때 문제 푸는 시간이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리프레시 시간을 가지면서 좀 쉬어야지 다시 그 퀄리티 높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쿨타임이 돌아온다는 것을 몸소 체감했기 때문이다.

4.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항상 과외를 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문을 읽을 때 '문제 푸는데 아무 필요가 없는 쓸데 없는 생각, 또는 너무 과학계 확장된 생각'의 비중이 높아지는 학생들이었다. 비문학에서는, 그 '쓸데 없는 생각'의 대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다.

항상 명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학자, 철학자, 기술자가 되려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읽는 글은 '문제를 풀기 위해 읽어야 하는 지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출을 풀어보면서, "아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 이해가 불가능하니 그냥 글자 그대로 처리만 해야 할 것'을 그때그때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곧 출판될 내 책의 해당 부분을 첨부할 것이니 참고하도록 하자!

+ 2026 비문학 개론

2월까지의 초고를 다 작성할 예정이라고 이전에 제가 말했었는데, 책 집필이 생전 처음이기도 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칼럼에서 언급한 1번 내용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인강에 질질 끌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담았습니다. 이는,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아 이 정도 내용이 확실히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내가 주도적으로 인강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을 [실전 개념서]의 형태로 정리한 책입니다. [개념편], [문제편], [해설편]으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초고를 제출한 것이어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4월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확실히 마무리되어서 출판 예정일 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 출판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열렬히 응원합니다!